

조선시대 남녀공용의복에 관한 연구

- 의복명칭을 중심으로 -

김은정* · 강순제

가톨릭대 의류학과 박사과정* · 가톨릭대 의류학과 교수

상고시대의 襦, 袴, 袍는 당시 남녀가 명칭과 형태를 공유하며 함께 입었던 의복이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의복의 명칭을 상고시대의 襦·袴·袍에 준하여 상의류, 하의류, 외의류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 중 남녀가 명칭을 공유하며 함께 착용한 의복들을 ‘男女共用衣服’이라 정의하여 그 의복들의 어원과 형태를 고찰하여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男女共用衣服은 상의류에서 赤古里, 汗衫, 衫兒, 赤衫, 하의류에서 袴, 禪子, 바지, 외의류에서는 長衣, 背子, 周衣로 추출되었다.

상의류에서 赤古리는 원경왕후 遷奠儀에 처음 표기되었고, 점차 저고리(저구리, 저고리)라는 한글 표기와 혼용된 후 19세기말을 전후로 남녀 모두가 착용하는 상의류의 일반 명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조선초기에는 남녀공통의 형태도 발견되나, 이후 여자 저고리는 목판깃, 당코깃, 둥근깃에로의 변화와 점차 짧고 좁아지는 옷길, 품의 변화 등 시기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남자는 깃에서의 변화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汗衫, 衫兒, 赤衫은 남녀 모두의 홀으로 된 속옷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 세 용어는 점차 적삼으로 통일되면서 홀옷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하의류에서 남녀공용 의복명칭인 袴, 禪子, 바지는 조선말에 ‘바지’로 통일됨을 알 수 있다. 또 남자에게는 겉옷으로, 여자의 바지는 다시 속옷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의 의복으로 분화한다. 또한 1600년대 以前에는 남녀가 개당고형 바지와 합당고의 형태를 함께 착용하였고, 以後의 時期에는 남자는 사복바지의 형태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외의류에서 長衣는 조선초·중기에 남녀의 袍로 사용되었고, 이후 남자는 다양한 袍制들 속에 점차 사라지고, 여자는 쓰개의 용도로 변화되어 국말까지 사용되었다. 형태는 겹깃과 안깃이 목판깃으로 대칭이며, 길은 트임이 없이 막히고, 직배래에 겨드

랑이의 삼각무가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남녀가 동형으로 후기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背子는 여자는 喪禮, 祭禮, 嘉禮時의 禮服으로, 남자는 赤古里 위에 입는 의복으로 정의되고, 개화기 이후에는 남녀 無袖對襟의 형태로 저고리 위에 입는 의복으로 설명된다. 周衣(두루마기)는 두루 막혔다는 뜻으로 周防衣, 周遮衣, 周莫衣, 防衣의 동의표기를 가진다. 이는 의례적인 성격을 띤 다른 袍制에 비해 신분에 구분 없이 모든 계층에서 착용한 옷이었다.

조선시대 남녀공용의복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명칭에서는 의복의 발달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상의류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발달되고, 하의류는 남자는 겉옷으로, 여자에게는 치마 속에 입는 속옷으로 다양하게 발달하였으며, 외의류는 남자에게서 더욱 발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형태에서 상의, 하의류는 남녀가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외의류에서는 남녀의 형태가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용도에서 저고리는 남자에게는 주로 받침 옷으로, 여자에게는 겉옷으로 착용되었고, 바지는 남자의 겉옷으로, 여자에게는 치마 안에 입는 속옷으로 정착하였다. 외의류에서도 주로 여자는 내외용이나 방한용이었던 반면 남자는 의례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남녀에 따른 용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는 조선의 사회적 성격은 男女共用衣服의 형태와 용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혼란한 사회환경을 초래한 전쟁은 남녀바지의 형태변화, 용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 특정 계층으로서의 기녀들은 그들만의 유행을 상류사회에 전파하여 저고리길이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다양한 속옷류로 분화한 여자의 바지는 겉에 입은 치마의 실루엣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실학사상과 국말의 개화사상은 衣類의 간소화와 더불어, 신분에 구별 없이 男女共用的 두루마기 착용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